

唐詩 중에 나타난 이별장소의 전형성 고찰 *

배다니엘**

目 录

1. 서론
2. 唐代 이별시에 나타난 전형적인 이별 장소
 - 1) '折柳' 풍속성에 기인한 灞橋
 - 2) 초월의 상징을 내포한 南浦
 - 3) 회귀의 희망을 담은 河梁
 - 4) 선택의 갈등을 동반한 岐路
 - 5) 송별과 머무름의 회한이 공존하는 離亭
3. 결어

1. 서론

‘이별’은 인간의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람들은 ‘이별’로 인해 각종 상황과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별이 야기하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고 심리적 영향력도 지대하기에 역대 문헌을 보면 이별과 연관된 주제와 내용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문학에서 ‘이별’은 창작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주제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적 부침이 심했던 唐代에 들어와서는 ‘이별’ 상황이 전대보다 큰 폭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唐詩 중에는 ‘贈別’, ‘宴別’, ‘留別’, ‘送別’, ‘餞別’, ‘寄別’, ‘送行’ 등 다양한

* 이 논문은 2019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 글로벌지역문화학과 중국지역 전공 교수

명칭이 붙은 이별시가 존재하게 되었다.¹⁾唐人들이 ‘이별’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식하며 창작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시인들은 이별시를 창작함에 있어 이별 내용의 묘사 뿐 아니라 감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각종 수사적 기교를 강구한 바 있으며, ‘折柳’, ‘灞橋’, ‘南浦’, ‘河梁’, ‘岐路’, ‘離亭’, ‘孤雲’, ‘遠帆’, ‘杯酒’ 등 이별과 연관된 전형적 이미지를 가미하여 감정의 강조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별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심리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이별의 의미와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이별 ‘상황’과 달리 이별을 묘사한 ‘작품’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가 하는 점은 이별의 전후사정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되어야 하는 예술적 부분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별을 묘사했는가, 어떠한 소재를 활용하여 이별을 형상화 했는가 등은 이별 감성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의 창작기교와 연관된 문제가 된다. 唐代에 와서는 전대에 비해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이별도 많아졌고 시인들이 창작한 이별시 역시 활발한 창작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작품의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이별을 묘사한 시의 예술적 기교 역시 한층 성숙하여졌다. 唐代에 와서 이별시가 발전을 하게 된 연유에는 여러 시인들이 창작에 참여하여 이별시의 예술적 성취를 높인 것이 주된 이유인데 그 내면 요인 중 이별 상황과 연계된 소재들이 전형화를 이룬 점도 한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가에서 이별과 연관된 상징성을 갖고 이별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소재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별장소’ 즉 ‘이별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관한 소재와 활용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별이 행해지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상황과 감성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별하는 심정에 대한 인식도 달

1) 宋代 嚴羽는 『滄浪詩話』 「詩評」에서 “唐人들은 시를 좋아하였는데 많은 수의 작품이 정별과 수자리, 편적, 행려, 이별을 노래하고 있어 종종 사람들의 생각에 감동이 분출하게 한다.(唐人好詩, 多是征戍、遷謫、行旅、離別之作, 往往能感動激發人意.)”라는 평을 가한 바 있는데 이는 唐代에 들어와 ‘出行’, ‘出征’, ‘貶謫’, ‘轉職’, ‘避難’ 등 각종 사회와 개인적 원인이 야기한 이동과 이별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이별시의 창작이 더욱 성행하게 된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며 일종의 전형화를 이룬 이별 장소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미지와 함께 특별한 이별 감성을 유발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소재가 된다. 그렇기에 ‘이별을 노래한 시’ 속에 나오는 ‘이별이 행해진 장소’는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리 느낌을 제공하는가하는 문제는 이별시를 연구함에 있어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별’과 ‘장소’의 상관관계에 착안하여 唐詩 중에서 이별이 이루어진 몇몇 중요한 지역을 살펴보고 그 상징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唐詩에 이별 장소로 등장하는 곳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시적인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灞橋’, ‘南浦’, ‘河梁’, ‘岐路’, ‘離亭’ 등 5곳을 대상으로 하여 唐詩 중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본고의 주된 과제로 삼았다. 길을 이어주는 다리, 포구, 갈림길, 驛亭 등은 이별이 가장 빈번하게 행해졌던 곳ियो ‘灞橋’, ‘南浦’, ‘河梁’, ‘岐路’, ‘離亭’ 등은 이곳을 대표하는 송별처가 되기 때문이다. 지역적 특색이 각기 다른 장소들이 소재로 활용된 시가를 살펴보는 것은 唐代 ‘이별시’가 형성한 상징성과 문학적 의미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2. 唐代 이별시에 나타난 전형적인 이별 장소

1) ‘折柳’ 풍속성에 기인한 灞橋

唐代 시가에서 ‘灞橋’는 ‘折柳’의 풍습과 함께 가장 많이 이별이 언급된 곳으로 전형적인 이별 장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灞橋’는 長安 동쪽 ‘灞水’ 위에 세워져 있던 다리로 그 연원은 春秋時代까지 올라간다. ‘灞水’는 秦嶺의 藍谷에서 발원한 渭河의 한 지류로 원명은 ‘滋水’였는데 春秋時代 秦穆公이 천하를 제패한 것을 기념 삼아 이 강을 ‘霸水’로 개명하였고 灞水 위에 교량을

세워 長安 동쪽의 문호로 삼은 바 있다. 漢代 이후에 지리학자들에 의해 ‘霸’ 자에 ‘氾’가 추가되었으며 이후 ‘灞水’, ‘灞上’, ‘灞上’ 등으로 불리어져 왔다. ‘灞橋’의 면모와 관련하여서는 清代에 편찬된 『陝西通志』의 다음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漢代의 灞橋는 長安城 동쪽 20리 지점에 있었고 霸店 남북으로 두 다리를 만들어 새로이 통하게 하였다. 唐代 灞陵橋는 長安 通化門 동쪽 25리 지점에 있었는데 山東 唐邑人 劉斌가 이 다리를 견고하게 재건해 놓았다. 무지개 형상 15개에 80여보 정도로 길었고, 24척의 넓이에 중간을 세 줄로 나누었으며, 다리 양쪽에는 두 개의 난간이 있는데 고래와 자라 머리 형상의 화표가 있었다. 5리에 걸쳐 제방을 쌓았고 버드나무 만 그루를 심어 놓았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어깨를 스치고 부딪칠 정도였으며 長安의 장관이 되었다.(漢霸橋在長安城東二十里, 霸店南北兩橋以通新丰道. 唐灞陵橋在京兆通化門東二十五里, 元時山東唐邑人劉斌修築堅固, 凡一十五虹長, 八十餘步闊, 二十四尺, 中分三軌, 旁翼兩欄, 有華表鯨頭螭首, 築堤五里, 栽柳萬株, 游人肩摩穀擊, 爲長安壯觀.)²⁾

‘灞橋’가 長安의 동쪽 관문 역할을 하였기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실제 이 다리가 유명해진 것은 주변에 심어놓은 버드나무의 경치로 인한 것이었다. 秦 漢시대부터 사람들은 灞水 양안에 버드나무를 심어왔으며 隋 大業 연간에 대규모 버드나무 식재 공사를 하는 등 계속 버드나무를 가꾸어 온 결과 唐代에 와서는 灞橋 양안이 버드나무로 풍성해지게 되었고 이른바 ‘灞柳風雪’의 명칭으로 ‘長安八景’의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다. 灞橋는 長安을 드나드는 많은 이들이 거쳐 가는 곳으로 唐代에 長安에서 타지로 떠나는 이를 이곳에서 송별하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또한 ‘灞橋’ 한 편에는 西漢 文帝 劉恒의 陵墓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고인들의 시구에 ‘灞陵’, ‘灞陵橋’, ‘灞陵原’ 등의 명칭도 등장하게 되었다.³⁾

2) 清 劉餘義 감수, 沈靑崖 편, 『陝西通志』 「賈志」, (『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3) 이상의 내용은 李暉, 「唐代折柳風俗考略」, (中南民族學院學報, 1998.), 許智銀, 「唐代送別詩

‘灞橋’ 명칭과 관련하여 『全唐詩』를 살펴본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灞橋’ 10회, ‘灞陵’ 85번, ‘灞水’ 40번, ‘灞上’ 30번, ‘灞岸’ 37번, ‘灞亭’ 18번 등 총 220회에 달하는 언급이 실려 있어 ‘灞橋’가 이별장소로서의 전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唐詩 중에서 ‘灞橋’가 이별 장소로 전형화된 것은 이별할 때 ‘折柳’를 통해 석별의 정을 표현하던 전래의 풍습⁴⁾이 唐代를 거치며 형성된 ‘灞橋’에서의 ‘折柳贈別’ 행위로 더욱 확고해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灞橋’에 버드나무를 심어놓아 절경을 이루었고 이곳에서 버드나무를 꺾어 석별의 정을 표시한 것을 노래한 唐詩의 많은 묘사가 ‘灞橋’로 하여금 ‘이별 장소의 전형화’를 이루게 한 것이다. 『陝西通志』에서 “長安 동쪽 灞陵에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고로 이곳에 오면 침울해진다. 고래 사람들은 이를 일러 ‘혼을 사르는 다리(銷魂橋)’라고 불렀다.(長安東灞陵有橋, 來迎去送, 至此黯然, 故人呼爲銷魂橋.)”라고 한 기록은 唐代에 灞橋가 어떤 의미로 인식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 된다.

여러 唐代 詩人 중 ‘灞橋’, ‘折柳’, ‘離別’ 등을 연계하여 언급한 초기의 시인으로 李白을 들 수 있다. 李白은 “해마다 이어지는 버드나무 자태, 파릉에서의 이별을 슬프게 한다네.(年年柳色, 灞陵傷別.)”(「憶秦娥」), “봄바람이 이별의 고통을 알았더라면, 버드나무가 푸르게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春風知別苦, 不遣柳條青.)”(「勞勞亭」) 등의 언급을 통해 灞橋에서 이별하는 모습과 버드나무와의 상관관계를 묘사한 바 있다. 灞橋에서의 이별을 묘사한 이백의 작품

의原型意象」, (河南師範大學學報, 2010. 3.) 등의 내용 참조.

4) 버드나무(柳)는 ‘머무르다(留)’와 諧音 관계에 있는 단어이므로 이별할 때 ‘折柳’하여 송별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이었다. 梁代 樂府詩 「折柳歌辭」에도 “말에 올라 채찍을 잡지 않고, 오히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드네. 말에 앉아 긴 피리를 불어보니, 여행객의 수심이 사라진다.(上馬不捉鞭, 反折楊柳枝. 蹀坐吹長笛, 愁殺行客兒.)”라는 기록을 통해 예로부터 이별의 순간에 ‘折柳贈別’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별 순간에 버드나무를 꺾어 송별하는 ‘折柳贈別’ 풍습은 대략 西漢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漢代 長安의 사회상을 기록한 『三輔黃圖』의 “灞橋는 장안 동쪽에 있으며 물 위에 다리를 세운 것으로 漢代 사람들은 객을 이 다리에서 송별할 때 버드나무를 꺾어 주며 이별했다.(灞橋在長安東, 跨水作橋, 漢人送客至此橋, 折柳贈別.)”라는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중 「灞陵行送別」을 살펴보기로 한다.

「灞陵行送別」(과릉에서 송별하다)

送君灞陵亭	灞陵亭에서 그대를 보내는데
灞水流浩浩	灞수는 드넓게 흘러가누나
上有無花之古樹	다리 위로는 꽃이 없는 옛 나무가 있고
下有傷心之春草	다리 아래로는 상심에 찬 봄풀이 그득하네
我向秦人問路歧	내가 秦 땅의 사람에게 갈림길을 물으니
云是王粲南登之古道	王粲이 남쪽으로 향했던 옛 길을 일러주네
古道連綿走西京	옛 길은 서경으로 이어져 있고
紫闕落日浮雲生	궁궐에 해지는 중에 뜬구름이 피어나네
正當今夕斷腸處	이 저녁에 이별로 애가 끊어지는 곳에 있는데
驪歌愁絕不忍聽	근심에 찬 이별 노래 애절하여 차마 들을 수 없구나

이 시는 唐 玄宗 天寶 2년(743) 혹은 天寶 3년(744) 봄 李白이 잠시 장안에서 머물던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에서 李白이 송별한 사람은 정치적 좌절을 겪거나 仕途에서 실의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이는 시가 중에서 언급한 王粲의 고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⁵⁾ “古道連綿走西京”으로 시작되는 후반부의 내용 역시 모종의 정치적 어려움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西京’ 궁궐 위로 해가 지고 뜬구름이 이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처럼 시가에서 ‘落日’과 ‘浮雲’이 함께 쓰이는 경우는 흔히 “그릇됨이 공정함을 해치는 경우”를 은유하므로 모종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조정의 사악한 세력이 군주의 총명함을 덮고 충직한 신하를 떠나게 만드는 상황을 그린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배경으로 활용된 다리 위 ‘버드나무(無花之古樹)’와 다리 밑 봄풀의 정경묘사, 청각적 감각을 일깨우는 ‘이별노래(驪歌)’⁶⁾ 등은 이별의 감정을 더욱

5) 漢 獻帝 初平 3년(192)에 董卓의 부장 李傕과 郭汜가 長安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王粲은 荊州로 피난을 가며 「七哀詩」를 지은 바 있는데 그 내용 중 “과릉 언덕에서 남쪽으로 향하며, 고개 돌려 장안을 바라본다네.(南登灞陵岸, 回首望長安.)” 구절이 나온다. 이 시에서 李白의 친구가 가는 ‘南行 길’은 일찍이 王粲이 피난길에 올랐던 옛 길을 말하는 것으로 친구의 떠나감이 어떠한 어려운 사정에서 연유한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6) ‘驪歌’는 『詩經』에 나오는 「驪駒」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이별노래로 활용해 온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李白 이외의 여러 唐代 시인들도 ‘灞橋’를 이별 장소의 대명사로 활용하였으며 반복적 활용을 통해 ‘灞橋’는 이별 장소의 확고한 이미지를 확립하게 된다. 唐詩 중에서 ‘灞橋’와 연관된 지명을 이별시에서 활용한 구절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다. “파릉에서는 이별도 많아, 길게 휘날리며 땅에 끌리는 가지 적다네.(霸陵原上多離別, 少有長條拂地垂.)”(韓琮, 「楊柳枝詞」) 구절에서는 파교의 이별로 인해 길 가의 버드나무가 수없이 꺾이어져 나갔음을 과장법을 활용하여 언급하였고, “파수교 가에서 술 한 잔 하고는, 그대를 천리 운대로 떠나보낸다네.(灞水橋邊酒一杯, 送君千里赴輪台.)”(曹唐, 「送康祭酒赴輪台」) 구절에서는 멀리 新疆 지역으로 수자리 떠나는 이를 송별하는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송골매 깃발⁷⁾ 받들고 파수에서 이별하니, 그 곳에 있는 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네.(隼旗辭灞水, 居者皆涕零.)”(劉禹錫, 「送李策秀才還湖南因寄幕中親故兼簡衡州呂八郎中」) 구절에서는 정치적인 원인으로 지방관으로 떠나는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 내용을 들 수 있다.

‘灞橋’에서 이별하는 상황을 그림에 있어 거마를 통해 떠나거나 ‘灞亭’으로도 명명되는 驛站에서 술을 나누고 헤어지는 모습을 언급한 내용도 있다. “송별하여 떠나는 거마가 파교에 그득하다.(送車盈灞上)”(王維, 「送熊九赴任安陽」), “파수 언덕에서 떠나는 수레를 보내네.(灞岸送驢車)”(韓翃, 「送道士侄歸池陽」) 등의 구절은 이곳에서 수레를 타고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며, “함께 술을 마시며 파정에 저녁이 내렸네.(對酒灞亭暮)”(劉長卿, 「送友人東歸」), “술자리를 열어 파정에서 이별하네.(置酒灞亭別)”(岑參, 「送祁樂歸河東」), “슬픔 속에 파정에서 서로를 송별하네.(惆悵灞亭相送去)”(張籍, 「送施肩吾東歸」) 등은 灞亭에서 술을 주고받은 후 餞別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들이 된다.

‘灞橋’는 長安의 중요 관문으로 灞水 위에 건설된 멋진 다리와 주변의 버드

歌辭이다.

7) 본문 중의 ‘隼旗’는 송골매를 그린 깃발을 말한다. 옛날에 州郡의 長官이 이 깃발을 세웠던 것과 관련하여 지방 장관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나무가 연출하는 장관으로 인해 長安의 명소가 된 곳이었다. 봄이면 그득히 날리는 하얀 벼들 솜의 모습으로 인해 ‘灞橋風雪’의 호평을 얻으며 ‘關中八景’의 하나로 불리어지게 되었으며, 唐代 이후로도 시인묵객들이 즐겨 찾아 유람을 하거나 시상을 가다듬는 장소가 되기에 이르렀다. 唐代 이후로도 이곳에서의 이별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唐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심각한 이별상황은 많이 연출되지 않은 것 같다. 이는 후대 왕조에서 長安이 수도로 활용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환경이 변한 연유와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唐詩 중에서 ‘古道’, ‘南浦’, ‘岐路’ 등의 구절은 이별과 연관하여 특별한 감정을 자아내는 장소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이별 장소 중에서도 ‘灞橋’는 長安을 드나드는 여러 시인들의 다양한 사정과 이로 인한 이별을 형상화하는 특정 공간이요 지역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灞橋’는 唐詩 중에서 이별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地名의 전형화’를 이루어 이별의 슬픔을 가중시키는 시적 효과를 창출한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하다 하겠다.

2) 초월의 상징을 내포한 南浦

‘南浦’의 의미는 ‘남쪽에 있는 水浦’라는 지역 명⁸⁾과 ‘이별이 이루어지는 곳’의 의미가 결합되어 詩詞에서 ‘이별이 이루어지는 물가’라는 장소의 의미를 갖게 된 명사이다. ‘南浦’에 ‘이별’의 의미가 추가되게 된 것은 屈原이 일찍이 「九歌·河伯」에서 “그대는 악수를 나누고는 동쪽으로 가누나, 아름다운 이를 남포에서 송별한다네.(與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라고 하여 河伯이 그의 연인을 송별한 나루터를 ‘南浦’라 한 것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구절에서부터 ‘南浦’에 ‘이별’의 의미가 추가되기 시작하여 ‘南浦’는 점차 ‘이별의 나루터’를 대변하는 지명으로 쓰이게 된다. ‘灞橋’가 ‘折柳’하는 풍속과

8) ‘남쪽에 있는 水浦’라는 지명과 연관해서는 『說文解字』의 “물가이다.(水濱也.)”라는 해설과 『風土記』의 “큰물 가에 있는 작은 포구를 별도로 일러 ‘浦’라고 한다.(大水小口別通爲浦)”라는 해설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南浦’는 ‘남쪽에 있는 포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연관하여 이별의 의미가 형성되었다면 물가에서 헤어지는 정경을 묘사할 때 활용되는 ‘南浦’는 古代 典籍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屈原 이후 여러 시인들에 의해 ‘南浦’가 이별의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南朝의 江淹은 「別賦」에서 “봄풀은 푸른색을 띠고 있고, 봄물은 맑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나니, 그 슬픔을 어이할까나.(春草碧色, 春水淥波. 送君南浦, 傷如之何.)”라고 하여 물가의 정경묘사와 함께 이별을 논하였고, 梁의 謝朓는 「隋王鼓吹曲送遠曲」에서 “북쪽 다리에서 즐거운 연회를 말하더니, 남포에서 아름다운 이를 송별하네.(北梁辭歡宴, 南浦送佳人.)”라고 만남의 즐거움과 대비된 슬픈 헤어짐을 묘사하였으며, 梁의 徐陵은 「征虜亭送新安王應令詩」에서 “봉황 피리 불며 남포에 이르러서, 여가가 동평왕을 전별하네.(鳳吹臨南浦, 神駕餞東平.)”라고 하여 황제가 물가에서 송별하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唐代 이전에 시가에 등장하던 ‘南浦’는 ‘남쪽 포구’라는 지역적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였으나, 唐詩에 와서 ‘南浦’는 특정한 지역 명을 넘어 ‘이별이 이루어지는 물가’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이별과 연관된 다양한 정감을 드러내는 장소로 인식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全唐詩』를 살펴보면 ‘南浦’ 명칭이 110회 정도 출현한다. 唐詩 중 南浦에서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자.

王維, 「送別」(송별시)

送君南浦漏如絲 그대를 남포에서 떠나보내며 눈물이 실처럼 흘러
君向東州使我悲 그대가 동주로 향하는 것 나를 슬프게 하는 구료
爲報故人憔悴盡 옛 친구 소식에 초췌함이 극에 달하여
如今不似洛陽時 지금은 낙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다오

李白, 「贈漢陽輔錄事」其二 (한양 보녹사에게) 제2수

鸚鵡洲橫漢陽流 앵무주는 한양 강물에 비껴 있고
水引寒煙沒江樹 물은 차가운 연기 끌어들 강가 나무에 가라앉았네
南浦登樓不見君 남포에서 누각에 올라도 그대가 보이지 않으니
君今罷官在何處 그대는 지금 벼슬에서 물러나 어디에 있는가
漢口雙魚白錦鱗 漢口의 한 쌍 물고기의 하얀색 비단 비늘

令傳尺素報情人 편지를 전해 정든 이에게 보내노라
 其中字數無多少 편지 중 글자 수가 많고 적음 보지 마시고
 只是相思秋復春 그저 그대를 그리워하는 가을과 다시 올 봄 생각하시게

白居易, 「南浦別」(南浦에서 이별하며)
 南浦淒淒別 남포에서 쓸쓸히 이별하는데
 西風嫋嫋秋 가을바람 소소히 불어대네
 一看腸一斷 바라보게 되면 애간장이 끊어지나니
 好去莫回頭 그저 가시고 돌아보지 마시게나

李賀, 「黃頭郎」(황두랑)
 黃頭郎 노 젓는 뱃사공⁹⁾
 撈攏去不歸 힘써 노를 저어가서는 돌아오지 않네
 南浦芙蓉影 남포의 부용꽃
 愁紅獨自垂 시름 젖은 꽃봉오리 저 홀로 늘어졌다

王維의 「送別」은 王維가 齊州에서 祖詠을 전송하던 배경을 그린 시이다. ‘동쪽(東州)’으로 향하는 지인을 보내는 상황에서 ‘서글픈 심정(我悲)’의 묘사를 함에 있어 ‘남쪽 포구(南浦)’의 활용을 통해 슬픔의 극대화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李白은 「贈漢陽輔錄事」에서 친구를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南浦’를 활용하여 헤어져 있는 상황을 암시하였다. ‘南浦’라는 어휘가 이미 이별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다. 白居易가 南浦에서 헤어지는 정경을 그린 시 「南浦別」 역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한 작품이다. 南朝의 江淹이 읊었던 슬프게 헤어지는 장소의 이미지와 宋玉이 가을을 서글프게 노래했던 서정을 혼합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¹⁰⁾ ‘南浦’라는 어휘의

9) ‘黃頭郎’은 漢代에 船舶을 관장하던 관리를 말한다. 『史記』 권125 「佞幸列傳」에 “등통이 배 부리는 일로 황두랑이 되었다.(鄧通以權船爲黃頭郎)”라는 기록이 있다. ‘土’가 ‘水’를 이긴다는 뜻에 따라 관리들로 하여금 토의 색깔인 황색 모자를 쓰게 한 것에서 명칭이 유래한다. 전하여 뱃사공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인다.

10) 白居易 「南浦別」 시에 대해 俞陛雲은 『詩境淺說續編』에서 “첫 구의 남포에서 슬프게 헤어지는 장면은 江淹이 고향에서 이별하는 장면이요, 다음 구에서 가을바람이 소소히 불어오는 것은 宋玉悲秋의 경계이다.(首句淒淒南浦, 爲江淹恨別之鄉. 次句裊裊西風, 乃宋玉

활용을 통해 짧은 편폭 속에 ‘애간장이 끊어질 듯(腸一斷)’한 감성을 효율적으로 투입해놓을 수 있었다. 李賀는 「黃頭郎」에서 돌아오지 않는 뱃사공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을 그렸는데 시 중에 등장하는 ‘南浦’는 ‘낭군이 떠나간 곳(헤어짐)’과 ‘여인이 기다리는 곳(기다림)’의 이중적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별이나 기다림 모두 슬픈 감정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南浦’가 지닌 상징성과 표현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唐詩 중에서 ‘南浦’가 물과 연관된 이별의 장소로 전형화를 이룸에 따라 南浦와 연관된 장소 역시 이별의 상징성이 강화되게 되었다. ‘別浦’, ‘江浦’, ‘柳浦’와 같이 포구의 정경을 보여주는 곳이나 ‘江畔’, ‘江邊’, ‘江濱’과 같이 물과 연관된 장소 등에 이별의 서정이 이입되어 이별시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게 된 것이다. 강가나 포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에 이전에도 이별의 장소로 자주 활용되어 왔지만 ‘南浦’ 어휘가 이별의 서정을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장소들도 이별의 의미를 더욱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¹¹⁾ 唐詩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별 장소 중에서도 ‘南浦’는 ‘물’, ‘석별’, ‘슬픔’, ‘기다

悲秋之際.)”라는 평을 가해놓고 있어 참고가 된다.

11) 韋應物, 「送王校書」: “그대를 강가 포구에서 보내며 벌써 슬피져, 다시금 서쪽 누각에 올라 먼 배의 돛을 바라보네.(送君江浦已惆悵, 更上西樓看遠帆.)”, 李中, 「送戴秀才」: “작은 노 저어 조용한 포구를 떠나가니, 외로운 돛단배 먼 연기와 닿는구나.(短棹離幽浦, 孤帆觸遠烟.)”, 皎然, 「送淳于秀才蘭陵觀省」: “버드나무 포구에서 돌아올 이 그리워하는데, 난능에는 봄풀이 피어났네.(柳浦歸人思, 蘭陵春草生.)” 등의 시에서 ‘別浦’, ‘江浦’, ‘柳浦’ 등의 이별장소를 통해 이별의 정을 배가시켰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孟浩然, 「秋登蘭山寄張五」: “하늘가 나무들 냉이처럼 보이고, 강가 모래톱은 마치 달처럼 생겼네. 언제 술을 가져와, 함께 중앙절에 취해보나.(天邊樹若薺, 江畔洲如月. 何當載酒來, 共醉重陽節.)”, 王昌齡, 「別李浦之京」: “옛 동산은 지금 파릉 서쪽에 있고, 강가에서 그대를 만나 매 취해도 미혹됨이 없네.(故園今在瀾陵西, 江畔逢君醉不迷.)” 등에 나오는 ‘江畔’은 이별한 친구를 그리는 마음이나 만남의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韓愈, 「左遷至藍關示侄孫湘」: “그대가 멀리서 옴은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음을 아니, 내 뼈를瘴江 가에서 잘 거두어 주게나.(知汝遠來應有意, 好收吾骨瘴江邊.)”에서는 ‘瘴氣가 그득한 강’, ‘슬픔이 서린 강’의 의미로 ‘江邊’을 활용한 예이며, 杜甫, 「送陵州路使君赴任」: “가을 하늘 마침 쓸쓸한데, 고개 돌려梓州의滄江 가를 바라본다네.(秋天正搖落, 回首大江濱.)”에서는 ‘江濱’을 통해 국가대란을 겪은 현실 속에서 친구와 이별하는 정을 그렸다.

림', '비통함' 등의 이별 서정을 종합적으로 내포하는 이미지를 갖추어나가게 된다. 唐代로 들어오면서 '南浦'는 지역을 의미하는 어휘에서 감정을 대표하는 어휘로 인식의 확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3) 회귀의 희망을 담은 河梁

'강의 다리'를 의미하는 '河梁' 역시 이별을 언급할 때 모종의 상징성을 위해 활용되었던 어휘이다. '河梁'은 『全唐詩』에 42회 등장하며 같은 의미를 지닌 '河橋'는 50회, '水橋'는 25회 각각 등장한다. '河梁'이 단순히 강에 세워진 다리의 의미에서 이별의 서정을 함유하게 된 것으로는 李陵 「與蘇武三首」其三 중의 “손을 잡고 강의 다리에 올랐으나, 날 저물매 나그네는 그 어디로 갈꼬.(携手上河梁, 游子暮何之.)”에 등장하는 '河梁'을 원형으로 들 수 있다.¹²⁾ 唐代 權德輿는 「埽橋達奚四于十九陳大三侍御夜宴叙各賦二韻」에서 “자고로 河梁에서는 이별도 많아라.(自古河梁多別離)”라고 하였고, 方幹은 「送鄭臺處士歸絳巖」에서 “옛 성현들은 河梁에서 헤어짐을 더욱 슬퍼하였다.(古賢猶愴河梁別)”라고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언급을 통해 '河梁'이 전통적으로 '이별'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대 시가에서 '河梁'은 강을 사이에 두고 헤어지는 정경을 그린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唐代에 들어와서는 '이별'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인식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河梁'을 통해 이별의 상징성을 강화한 구절들을 살펴보자.

賈島, 「送別」(송별)

12) 沈德潛은 『唐詩別裁』 「凡例」에서 “당인들의 시는 비록 각기 다른 틀에서 나오지만, 실로 팔대에 현장이 될 만하다. 李陵이 이별을 기록한 시가 '陽關三疊' 표현의 先聲이 되었다.(唐人詩雖各出機杼, 實憲章八代. 如李陵錄別開陽關三疊之先聲.)”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李陵의 시가 唐詩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門外便伸千里別 문 밖에서 천 리의 이별이 펼쳐지나니
 無車不得到河梁 수레가 없어 河梁에 가지 못하누나
 高樓直上百餘尺 높은 누각은 백 여 척 솟아있는데
 今日爲君南望長 오늘은 그대 위해 오랫동안 남쪽만 바라보나니

馬戴, 「河梁別」(강가 다리에서의 이별)
 河梁送別者 河梁에서 이별하는 자
 行哭半非親 떠나가며 우는데 그 중 반은 친지가 아니네
 此路足征客 이 길은 정벌하러 가는 이로 그득한데
 胡天多殺人 오랑캐 하늘 밑에서는 살인도 많이 일어나겠지

武元衡, 「送寇侍御司馬之明州」(明州로 떠나는 寇侍御 司馬를 송별하며)
 斗酒上河梁 말술을 나눈 후 河梁에 오르니
 驚魂去越鄉 혼이 놀라는 중에 고향 越 땅을 떠나간다네

林珣, 「送安養閻主簿還竹寺」(安養 閻主簿가 竹寺로 돌아감을 송별하며)
 分手怨河梁 헤어짐의 원한이 그득한 곳 河梁
 南征歷漢陽 남쪽으로 떠나면 漢陽이 눈에 역력할 텐데

賈島는 「送別」에서 ‘河梁’을 이별이 행해지는 장소로 인식하고 거마가 없어 이곳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별과 연관된 ‘河梁’의 상징성을 강화한 구절이다. 馬戴가 이별을 그린 부분은 수많은 이가 변재로 떠남에 따라 ‘河梁’에서 이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내용으로 한다. 변방으로 정벌을 떠나 살아올지 모르는 이와 울며 이별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슬픔의 극대화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河梁’을 활용했음을 살필 수 있다. 武元衡의 작품에서는 이별을 하기 전 술을 마시고 ‘河梁’에 올랐다는 표현이 시선을 끈다. 술은 석별의 정을 사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에 이별 장면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인데 이 소재와 ‘河梁’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이별의 정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林珣는 「送安養閻主簿還竹寺」에서 ‘河梁’을 단순히 이별을 하는 장소가 아닌 ‘헤어짐의 원한이 그득한 곳’으로 표현하였다. ‘河梁’이 마치 ‘이별의 원한을 가장 깊게 표현하는 장소’인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또한 王勃이 「越州永興李明府宅送蕭三還齊州序」에서 “河梁을 밟아보지 않은 자가 어찌 이별의 한을 알 수 있으리오?(不涉河梁者, 豈識別離之恨?)”라고 한 구절을 통해서도 唐代에 와서 ‘河梁’이 어느덧 ‘南浦’와 함께 이별장소로서의 상징성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南浦’가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는 이별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河梁’은 ‘강을 건너 떠나는 이별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대조된다. ‘南浦’는 ‘배를 타고 큰물이나 바다를 건너 가버린다’는 의미와 연관이 있는 어휘이므로 기약 없는 이별과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자주 활용되어 왔다. 이에 비해 ‘河梁’은 ‘강이라는 제약을 극복하고 연결된 다리’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슬픔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물을 가로지르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별을 묘사하는데 있어 ‘河梁’은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가 깊은 표현이 된다. 또한 ‘물을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를 지닌 ‘河梁’은 이별이 유발하는 ‘愁心’을 어느 정도 감소될 수도 있는 여지도 제공한다. ‘河梁’에서 아끼는 이가 ‘물을 건너 떠나가지만 ‘다리’라는 연결고리가 있기에 ‘물’이 유발하는 ‘이별’과 ‘떠나감’의 정서를 ‘기다림’의 미학으로 채울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河梁’은 이별을 상징하는 점에서 ‘南浦’와 같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으나 이별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감정의 유별에 따라 별도의 서정을 연출할 수도 있는 어휘라 할 수 있다.

4) 선택의 갈등을 동반한 歧路

길 가는 이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 중에 ‘갈림길(歧路)’에서의 선택이 있다. 길 가는 이에게 ‘歧路’는 둘 이상의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 요인이 되며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갖게 해 준다. 초기 문헌 중에서 ‘歧路’는 대체로 ‘알 수 없이 펼쳐진 눈앞의 여러 갈래 길’이라는 의미로 활용되었음을 여러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列子』『說符』에 “楊子の 이웃이 양을 잃어버렸기에 그 무리를 데리고 와서 양씨와 함

게 가기를 청하니 楊子가 일러 ‘아아!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어찌 여러 무리가 쫓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하니 이웃이 말하길 ‘갈래 길이 많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楊子之鄰人亡羊, 既率其黨, 又請楊氏之豎追之. 楊子曰: ‘嘻! 亡一羊, 何追者之衆?’ 鄰人曰: ‘多岐路.’)와 같은 언급이나, 魏 曹植이 「美女篇」에서 “미녀는 아름답고도 품위가 있어, 갈래 길 사이에서 뽕을 따고 있네.(美女妖且閑, 採桑岐路間.)”(『曹子建集』 제6권 「樂府篇」)라고 읊었던 것은 ‘歧路’를 ‘갈림길’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부합되게 묘사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갈림길’의 의미로 활용되던 ‘歧路’는 唐詩로 오면서 시인들이 이별을 묘사하는 부분에 활용하는 비중을 높임에 따라 점차 헤어짐과 갈등의 심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된다. ‘歧路’는 『全唐詩』에 전체 142회에 걸쳐 출현하는데 이별 장면에서 쓸쓸한 서정을 유발하는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唐詩 중 ‘歧路’의 활용으로 유명해진 시구로는 初唐 王勃이 「送杜少府之任蜀州」에서 “이별의 기로에 서서, 아녀자처럼 수건 적시지 마세나.(無爲在歧路, 兒女共沾巾.)”라고 한 구절을 꼽을 수 있다. 많은 唐詩 작품 속에 ‘歧路’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唐詩 초기의 작품인데다 이 구절을 통해 ‘歧路’가 이별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여운이 크다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歧路’가 이별의 의미를 강조하는 시어로 활용된 예는 많다. 駱賓王은 「秋日送侯四得彈字」에서 “기로는 헤어짐이 쉽게 일어나나니, 풍운 속에 떠나기 어려운 발길을 재촉하누나.(歧路分襟易, 風雲促膝難)”라고 하여 ‘갈림길(歧路)’과 ‘이별(分襟)’의 상관관계를 직설적으로 언급하였고,¹³⁾ 柳宗元은 「重別夢得」에서 “지난 이십 년 동안 온갖 일을 함께 했는데, 오늘 아침 홀연히 기로에서 동서로 헤어지네.(二十年來萬事同, 今朝歧路忽西東.)”라고 하여 석별

13) 이 시에서 갈림길과 함께 이별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分襟’은 ‘分袂’처럼 헤어짐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王勃, 「春夜桑泉別王少府序」의 “타향에서 손을 잡고 절로 관새의 봄을 슬퍼하네. 타향에서 헤어지게 되어 정녕 매우 서글픈 길을 가게 되리니.(他鄉握手, 自傷關塞之春. 異縣分襟, 竟切悽愴之路.)”, 元代 薩都刺, 「別高照庵」의 “오늘 헤어지니, 그 어느 해 손을 잡을 수 있으리오?(分襟在今日, 握手又何年.)” 등의 구절을 참조할 수 있다.

의 정과 엇갈린 운명을 한탄하는 마음을 표한 바 있다. 唐代에 들어와 ‘歧路’가 이별을 대변하는 시어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歧路’는 길 떠난 이가 마주하게 되는 갈래 길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었지만 떠나가는 이와 남아 있는 이의 애타는 심정을 묘사한 경우에도 자주 보인다. 賈邕은 「送蕭穎士赴東府得路字」에서 “그대 東周로 떠나려 하니, 문하의 사람들 갈림길에 그득하네.(子欲適東周, 門人盈歧路.)”라고 하여 멀리 떠나는 이를 전송하는 정경 속에 岐路를 등장시켰고, 儲光羲는 「送周十一」에서 “손을 잡으며 원정길에 오르는 가마와 이별하니, 돌아보매 슬픔에 기로가 멀기만 하네.(握手別征駕, 返悲歧路長.)”라고 하여 떠나는 이와 남아 있는 이 사이의 아득한 거리감을 표현하는데 岐路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歧路’가 이별의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있어 王勃 「送杜少府之任蜀州」의 “아녀자처럼 수건 적시지 마세나.(兒女共沾巾)”처럼 ‘눈물’과 같은 ‘슬픈 감성’의 추가는 더욱 효율성을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 ‘歧路’ 표현과 함께 ‘눈물’, ‘슬픔’ 등의 감정요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석별의 정을 높인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자.

劉長卿, 「青溪口送人歸岳州」(청계 입구에서 岳州로 돌아가는 이를 전송하며)

歧路相逢無可贈 기로에서 만나니 무언가 줄 것도 마땅치 않아
老年空有淚沾衣 늙그막에 부질없이 눈물로 옷을 적신다

韋應物, 「送李二歸楚州」(楚州로 돌아가는 이를 전송하며)

忽此嗟歧路 갑자기 이 기로에 들어서서
還令泣素絲 실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蘇頲, 「贈彭州權別駕」(彭州權의 가마에 부침)

莫愴分飛歧路別 기로에서 서로 헤어지는 이별을 슬퍼하지 마세나
還當奏最掖垣來 돌아오면 응당 중앙부서로 추천될 것이니

劉長卿은睦州에 머물던 당시 ‘청계(新安江)’를 타고 岳州로 돌아가는 사람을 전송한 바 있다. 이 때 느낀 섭섭한 마음을 ‘부질없이 눈물로 옷을 적시는(空有淚沾衣)’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歧路’에서 행해지는 이별에다 슬픔의 극대화를 첨가한 결과라 하겠다. 韋應物의 송별시에서도 岐路에서 실 같이 흘리는 눈물은 끝없는 슬픔을 대변하는 좋은 표현이 되고 있다. 떠나가는 이가 공을 세워 다시 중앙 요직에 천거되기를 축원하는 내용을 담은 蘇頲 시에서는 ‘愴’, ‘分飛’, ‘歧路’, ‘別’ 등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서글픈 이별 장면을 총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발견된다. ‘歧路’가 이별이 행해지는 장소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눈물(淚)’은 이별에 임하는 자의 심리와 행동을 대변하는 좋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歧路’에서 이별함에 있어 권면의 말을 추가하며 마음을 위로하는 장면도 보인다. 張說은 「南中別王陵成崇」에서 “그대와 손을 잡고 이별하며, 기로에서 한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네.(握手與君別, 岐路贈一言.)”라고 한 구절이나 孟浩然이 「送張子容進士赴舉」에서 “들녘에서 헤어짐을 슬퍼하나니, 기로에서 은근하게 위로의 말을 전해보네.(惆悵野中別, 殷勤歧路言.)”라고 한 구절을 들 수 있다.

‘歧路’에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대화나 언급을 배제하고 주변 환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별의 서정을 극대화시킨 구절도 있다. 楊炯은 「送臨津房少府」에서 “기로에서 늦가을에 이별하는데, 강가 나루터는 만 리까지 이어지네.(歧路三秋別, 江津萬里長.)”라 하여 늦가을 쓸쓸한 정경과 길게 이어진 나루터의 모습으로 슬픔을 강조하였고, 儲光羲는 「送沈校書吳中搜書」에서 “교외에 있는 정자 높고도 멀리 있는데, 들녘 한 가운데를 기로가 나누고 있네.(郊外亭皋遠, 野中歧路分.)”라고 岐路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언급함으로써 아득한 이별을 표현하였다. 高適은 「送劉評事充朔方判官賦得征馬嘶」에서 “기로에 바람이 멀리까지 불고, 관산에 뜬 달을 보며 함께 슬퍼하네.(歧路風將遠, 關山月共愁.)”라고 하여 헤어짐의 상징인 ‘歧路’와 아득한 변세의 상징인 ‘關山’을 대비하는 수법으로 더욱 창연한 비감을 창출하였고, 皎然은 「于武原從

送盧士舉」에서 “쓸쓸한 옛 관외에, 다시 갈림길이 동서로 나있네.(蕭條古關外, 岐路更東西.)”라고 하여 변방의 쓸쓸함을 더하는 풍경으로 ‘岐路’를 묘사하였다.

詩文 중에서 ‘岐路’는 헤어져 가야 하는 ‘길’을 묘사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이별해서 가는 이가 맞이하게 되는 ‘아득함’, ‘방황’, ‘선택’ 등 심리적인 정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인 경우도 많다. 皇甫冉이 「送柳八員外赴江西」에서 “갈림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고, 장강은 아홉 갈래로 나뉘어 흐르네.(岐路窮無極, 長江九派分.)”라고 하여 ‘岐路’를 ‘아득함’의 상징으로 묘사한 것이나, 褚亮이 「晚別樂記室彦」에서 “타향에서 갈림길을 만나니, 떠도는 이는 어디로 가야하는가?(他鄉有岐路, 游子欲何之.)”라고 하여 떠도는 이의 아득한 심정을 표현한 것, 盧綸이 「送吉中學校書歸楚州舊山」에서 은거지로 돌아가는 吉中孚를 송별하면서 그의 앞길을 걱정한 “이 곳에서 떠나면 다시 어디로 가야하는가, 은거지에서의 갈림길은 많을 것이네.(此去復如何, 東臯岐路多.)”라 한 부분에서 ‘岐路’를 단순한 갈림길이 아닌 ‘인생의 선택’으로 은유한 것, 杜荀鶴이 「下第東歸別友人」에서 “시절은 아름다운데 낙제하며 또 늙었으니, 갈림길은 관외로 길게 나 있네.(年華落第老, 岐路出關長.)”라고 하여 낙제한 이가 기로에서 느끼는 아득함을 표현한 것 등은 ‘岐路’가 이별과 연관된 심리적 상황을 효율적으로 묘사한 예들이 된다.

‘岐路’는 이별과 왕래가 잦았던 唐人들이 이별 장면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했던 ‘장소’이며 이별에 임하는 슬픈 ‘심정’이나 ‘상황’을 잘 대변하는 시어이기도 하다. 이별의 장소로 채택된 ‘灞橋’, ‘南浦’, ‘河梁’ 등이 ‘물’과 연관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岐路’는 갈림길이라는 선택의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다른 장소와 구별된다. 시대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이동’이나 ‘行役’이 발생하면 이별을 초래하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岐路’에 서게 될 경우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 ‘岐路’를 맞이한 이는 자발적으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해야 하는 갈등상황을 겪기도 한다. 詩文 중에 쓰인 ‘岐路’는 이미 이별의 슬픔을 간직한

곳인데다가 여기에서 다시 여러 갈래 길을 마주한 이의 선택까지 요구한다는 점에서 ‘슬픔의 가중’을 유발하는 어휘가 된다.

5) 송별과 머무름의 회한이 공존하는 離亭

‘이별이 행해지는 정자’를 의미하는 ‘離亭’은 행인들의 휴식과 숙식을 염두에 두고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亭’은 본래 행인들이 쉬거나 머무르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秦代漢代부터 십 리마다 하나의 ‘亭’을 세워 ‘驛亭’의 역할을 하게 한 역사가 있다. ‘亭’은 세워진 지역이나 모양,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졌는데 唐詩 중에도 여러 종류와 명칭의 ‘亭’이 등장한다.¹⁴⁾ 唐代 이별시에 주로 등장하는 ‘亭’은 떠나고 송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離亭’ 즉 ‘驛亭’의 의미를 지닌 곳으로 경치 좋은 곳에 세워져 주변을 감상하는 정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離亭’은 정자의 구체적인 명칭이라기보다는 ‘이별이 행해지는 정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¹⁵⁾ ‘離亭’은 본래 행인들이 거쳐 가면서 잠시 머무는 곳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곳에서 송별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작품 속에서 묘사됨에 따라 ‘이별하는 곳’의 전형성을 지니게 된 곳이라 할 수 있다.

唐詩 속에 나오는 다양한 명칭 중에서 단순한 정자가 아닌 이별이 행해지는 장소라는 ‘離亭’의 의미로 정자가 언급된 경우를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14) 『爾雅』「釋名」에 “亭은 (머무르는 곳을 의미하는) 停이다. 사람들이 정자에 모이는 것이다.(亭, 停也. 人所停集也.)”라는 기록이 있어 고대의 ‘亭’은 머무르는 곳의 의미와 기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亭’의 명칭도 다양하여 ‘長亭’, ‘短亭’, ‘蘭亭’, ‘河亭’, ‘關亭’, ‘客亭’, ‘柳亭’, ‘孤亭’, ‘都亭’, ‘古亭’, ‘西亭’, ‘紅亭’ 등 장소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 15)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全唐詩』 중에 ‘亭’은 무려 2423번이나 나오는데 여러 정자의 명칭 중에서도 ‘길 가는 행위와 관련하여 머무르다 가는 기능을 하는 정자’에 해당하는 ‘長亭’은 60회, ‘短亭’은 15회, ‘驛亭’은 18회, ‘西亭’은 67회, ‘客亭’은 23회, ‘紅亭’은 15회가 각각 발견된다.

王昌齡, 「留別郭八」(郭八을 전송하며)
 長亭駐馬未能前 장정에서 머물렀던 말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井邑蒼茫含暮烟 마을은 창망하게 저녁연기를 품고 있네

孟浩然, 「峴山餞房琯崔宗之」(峴山에서 房琯과 崔宗之를 전별하며)
 祖道衣冠列 길가는 이를 위해 잔치하는 곳에 의관이 늘어섰는데
 分亭驛騎催 숙소(정자)를 떠나려니 말이 재촉을 하네

岑參, 「陪使君早春西亭送王贊府赴選」(使君과 함께 이른 봄 西亭에서 부
 임해가는 王贊府를 송별하며)
 西亭繫五馬 西亭에 五花馬가 묶여 있는데
 爲送故人歸 친한 이 돌아오길 바라며 송별하네

高適, 「宋中別李八」(宋 지역에서 李八과 헤어지며)
 駐馬臨長亭 말을 세우고 長亭에 머무르니
 飄然事明發 아스라하던 이별이 확연하게 느껴지네

裴說, 「春暖送人下第」(따뜻한 봄에 과거에 떨어진 이를 송별하며)
 相送短亭前 단정 앞에서 서로 송별하니
 知君愚復賢 그대는 우둔하면서도 현명한 이임을 알겠노라

이상의 기록들을 통해 ‘離亭’에서 이별행위와 송별이 이루어졌음과 행인의 편의를 위해 세워진 정자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헤어짐과 송별의 의미를 담은 ‘離亭’의 이미지로 자주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唐詩 묘사 중에는 이별이 일어나는 ‘離亭’에서 술이나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된다. 許渾은 「南亭送張祜」에서 “연회가 파하고 손님들이 흩어지니, 긴 노래 부르며 다시 술 한 잔 잡아 권해보네. 개울가 정자에서 서로 멀리 송별하니, 산자락 따라 돌아오는 길 더디기만 하구나.(宴罷衆賓散, 長歌携一卮. 溪亭相送遠, 山郭獨歸遲.)”라고 하여 ‘溪亭’에서 술과 잔치로 객을 송별했음을 노래하기도 했고, 岑參은 「水亭送劉顯使還歸節度」에서 “紅亭에서 취하는 것 애석해하지 말게, 해가 아직 낮게 보이니니.(紅亭莫惜醉, 白日眼看低.)”라고 하여 아직 해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 술 취함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마음을 담았으며, 賈至는 「送耿副使歸長沙」에서 “화려한 배는 남쪽으로 향하려 하나, 강가 정자에서 아직도 연회를 하고 있나니. (畫舸欲南歸, 江亭且留宴.)”라고 하여 배가 떠나려 해도 송별연을 끝내고 보내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바 있고, 韓翃은 「送盧大理趙侍御祭東岳兼寄孟兗州」에서 “驛亭에서 설날 술자리를 펼치고, 재실에서 새 옷을 입는 다네.(驛亭開歲酒, 齋舍著新衣.)”라고 하여 길 떠나는驛亭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술자리를 가진 모습을 노래하기도 했다. 唐代人들이 ‘離亭’에서 잔치를 베풀며 술과 노래를 통해 길 가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餞別’을 했음을 파악하게 해주는 구절들이다.

唐詩 중에는 이별 장면에서 ‘離亭’을 등장시키되 직접적으로 이별을 언급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별에 임하는 이의 처연한 심정을 표현한 구절도 많다. ‘離亭’의 모습을 그리면서 비 내리는 풍경을 함께 언급한 구절들을 보면, 陳子昂은 「落第西還別魏四懷」에서 낙제하여 떠나는 魏四懷를 위로하면서 “離亭에는 비바람이 불어 어둡고, 떠나는 길은 구름과 연기 속으로 들어가네.(離亭暗風雨, 征路入雲烟.)”라 하여 이별하는 정자 주변의 암담한 풍경을 노래하였고, 劉長卿은 「送梁侍御巡永州」에서 “강가에 저녁 드니 쓸쓸한 비가 내리고, 객들은 흩어져 들녘 정자는 텅 비었구나.(蕭蕭江雨暮, 客散野亭空.)”라고 하여 비 내리는 저녁에 이루어진 이별 후 덩그러니 남은 정자의 모습을 통해 쓸쓸한 심정을 강조하였으며, 皎然은 「于武原從送盧士舉」에서 “큰 못에는 구름이 쓸쓸히 떠 있고, 長亭에는 서글픈 비가 내리네.(大澤雲寂寂, 長亭雨淒淒.)”라고 하여 長亭 주변의 쓸쓸히 날리는 구름과 비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예거한 구절들에서는 모두 이별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離亭’과 비 오는 날씨의 언급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 것이 발견된다. 이별이 유발하는 처연한 감성을 기조에 놓고서 은유와 연상을 통해 감정의 극대화를 도모한 것이다.

‘離亭’의 모습과 함께 해가 지는 형상을 같이 서술하여 이별의 슬픔을 형상화한 예도 종종 발견된다. 李端이 「送張淑歸觀叔父」에서 “長亭에 해가 저무

니 쓸쓸해, 하늘은 높는데 큰 못은 한가롭네.(日慘長亭暮, 天高大澤閑)라고 하여 거대한 자연이 어두워져가는 광경을 그림으로써 아끼는 이가 사라지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이나, 馬戴가 「江亭贈別」에서 “長亭에서 늦은 시각에 그대를 보내는데, 가을 색 깊은 중에 강을 건너가네.(長亭晚送君, 秋色渡江濱)”라고 하여 저녁 무렵 떠나가는 이에게서 발견되는 배경을 가을의 소슬한 색감으로 처리한 것, 李頎가 「送僧入天台」에서 “長亭에서 이어지는 이별의 옛길, 해 지는데 홀로 가는 스님이여.(長亭舊別路, 落日獨行僧)”라고 하여 해 지는 중에 먼 길을 홀로 가는 모습을 통해 외로운 이별 형상을 그려낸 것, 尚顏이 「送人歸鄉」에서 “長亭 너머는 쓸쓸하기도 하여라, 해는 전처럼 떨어지며 쓸쓸한 빛을 비추는데.(寂寞長亭外, 依然空落暉)”라고 하여 이별 뒤에 자연은 그대로 남지만 자신의 감정은 한 없이 쓸쓸한 나락으로 빠지게 됨을 은유한 것 등은 모두 ‘離亭’과 ‘지는 해(落日)’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이별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묘사한 예가 되는 구절이다.

‘岐路’와 마찬가지로 ‘離亭’ 역시 行路에 이른 이들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장소이다. ‘岐路’가 길을 가다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대변하는 장소라면, ‘離亭’은 이곳에서 객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餞別을 함으로써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머무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비교된다. 그러나 ‘離亭’ 역시 결국은 머물렀던 시간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하는 곳이니 唐詩에서 ‘離亭’을 등장시킨 작품은 이별의 슬픔을 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李白이 「勞勞亭」에서 “천하에 슬픈 마음이 모인 곳은, 근심스럽게 객을 보내는 정자라네.(天下傷心處, 勞勞送客亭.)”라고 하거나 柳惲가 「贈別二首」에서 “그 어느 곳이 가장 슬프고 애통한가, 長亭에서 옛 나루터로 이르는 길이라네.(何處最悲辛, 長亭臨古津.)”라고 한 구절은 唐代에 들어와 ‘離亭’이 이미 이별 장소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다. 한 편의 이별시 속에는 슬픔, 상심, 처연함, 안타까움 등 다양한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별하는 장소가 ‘離亭’처럼 머무름, 떠남, 餞別 등을 복합적으로 상징하는 곳이라면 그 시기에 실린 감성 역시 더욱 오묘해지게 된다. 唐詩 중에 나오는

‘離亭’이 이별 장소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3. 결어

본고에서 살펴본 ‘灞橋’, ‘南浦’, ‘河梁’, ‘岐路’, ‘離亭’ 등 5곳은 唐詩에서 이별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이별은 장소를 막론하고 이루어지는데 이상과 같은 소재가 시가에서 활용된다면 이별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형성되게 된다. 5곳은 다리, 포구, 갈림길, 驛亭이라는 점에서 각기 다른 지역적인 특색을 함유한 이별장소이며 시가에서 활용된 양상 역시 비교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灞橋’는 唐代에 와서 長安을 떠나가는 이별을 대표하는 장소로 ‘折柳’ 풍습을 동반하여 섭섭함과 석별의 정을 상징하는 곳이다. 시가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도 京師와 연계된 지점이기에 개인적 의도 못지않게 정치 환경이나 사회적 부침에 의한 원인이 추측되는 이별 장소이기도 하다. ‘南浦’는 물을 배경으로 한 이별이므로 많은 경우 배를 타고 떠나는 이별을 묘사하고 있다. 떠나는 곳에서 정경을 바라보면 일차적으로 아득한 물이 눈에 보이므로 아득하고 기약 없는 상황을 연상하게 된다. 이별상황과 함께 아득한 시공간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공간적 요소인 것이다. ‘河梁’은 물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다리의 형상을 한 곳이므로 모종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되는 장소이다. ‘이어져 있는 형상’은 다른 지역보다 이별 후 언젠가 다시 이 다리를 건너 회귀하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의 가능성을 느낄 수도 있게 해준다. 이별이 주는 또 다른 감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이다. ‘岐路’는 여러 갈래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현실을 더욱 아득하게 만드는 곳이다.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색다른 갈등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이별의 슬픔에 갈등의 감정이 더해져 슬픈 감정의 상승효과가 이루어지기 좋은 곳이다. ‘離亭’은 머물렀다 떠나는 곳이므로 머무르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술과 노래, 송별연 등으로 인해 이별 감정이 더욱 풍성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길을 가는 이가 쉬어가는 곳이지만 이별시에

나타난 ‘離亭’에서의 모습은 섬과 안위보다는 이별 감정의 극대화가 더욱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전 시가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범주에서 언급되어 오던 장소였으나 唐代를 거치면서 점차 다양한 감정이 덧입혀지게 되고 일종의 전형화를 이루게 된 장소라 할 수 있다. 唐詩를 통해 의미의 심층화를 이룬 이별 장소들은 각각의 상징성을 지닌 채 이별을 노래한 시가의 전형적인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별의 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灞橋’, ‘南浦’, ‘河梁’, ‘岐路’, ‘離亭’ 등이 갖는 의미는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爾雅』, 北京: 中华书局, 2016.
- 許 慎, 『說文解字』, 北京: 中华书局, 2013.
- 司馬遷, 『史記』, 成都: 岳麓書社, 2011.
- 『全唐詩』, 北京: 中华书局, 1960.
- 郭茂倩, 『樂府詩集』, 北京: 中華書局, 1979. 11.
- 嚴羽 著, 郭紹虞 校釋, 『沧浪詩話校釋』,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62.
- 沈德潛, 『唐詩別裁集』, 北京: 中华书局, 1975.
- 李元洛, 『唐詩之旅』,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13.
- 施蟄存, 『唐詩百話』 上海古籍出版社, 1987. 9.
-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遼寧人民出版社. 1994.
- 許 總, 『唐詩史』(上·下) 江蘇教育出版社, 1995. 3.
- 吳庚舜·董乃斌 주편, 『唐代文學史』 (上·下) 人民文學出版社, 1995. 12.
- 戴永新, 「唐詩中楊花意象之流」, 北方論叢, 2009.
- 李 暉, 「唐代折柳風俗考略」, 中南民族學院學報, 1998.
- 許智銀, 「唐代送別詩的原型意象」, 河南師範大學學報, 2010. 3.
- 殷 憲, 「唐別離詩主題賴以生發的意象」, 山西大學學報, 1995. 4기.
- 溫成榮, 「從唐代送別詩看詩言志的意蘊」, 晉中學院學報, 2011. 4.

Abstract

A study on the typicality of farewell places in Tang dynasty' s poetry

Bae Daniel

This paper focuses on the five areas of 'Baqiao(灞橋)', 'South port(南浦)', 'Bridge on river(河梁)', 'Turning point(岐路)', 'Farewell pavilion(離亭)', which are frequently mentioned in the Tang dynasty's poetry.

First of all, these five places can be found in the primary symbol in that the departure is most frequently done in Tang poetry. Separation is done regardless of the place, but the material used in the poetry plays a role in making the meaning of separation better. The five place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with different loc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bridges, port, crossroad, and station, and the features utilized in the poetry are also comparable.

'Baqiao(灞橋)' is a place that stands out as a representative place to leave the Chang'an(長安) in the Tang Dynasty. 'South port(南浦)' is a farewell place with a background of water, so it often depicts a farewell departing aboard by ship. 'Bridge on river(河梁)' is a place where one person can feel any kind of connection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 shape of the bridge that passes through the water is located. 'Turning point(岐路)' is a good place where the synergy of sad emotions can be achieved due to the conflict that need to be separated on several roads and choose one side. It is meaningful that 'Farewell pavilion(離亭)' is a place that the farewell feeling is more abundant due to alcohol, song, and farewell in the moment of staying. The above place of separation has been mentioned in the general meaning category in the previous poetry, and it can be said that it becomes a kind of stereotyped by gradually adding various emotions through the Tang Dynasty. Through the poetry, the parting places that have made the deepening of the meaning represent the typical meaning of the poetry, singing the farewell with each symbolism. The significance of these five places is fully meaningful because they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how they use these materials in poetry.

Key words : farewell, 'Baqiao(灞橋)', 'South port(南浦)', 'Bridge on river(河梁)',
Turning point(岐路)', 'Farewell pavilion(離亭)', Tang dynasty' s poetry,
departing poetry

투 고 일 : 2019. 4. 10. / 심 사 일 : 2019. 4. 15.~ 2019. 5. 15. / 게재확정일 : 2019. 5. 20.